

# 재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

고광명\*\*

kkm0630@jeju.ac.kr

## <要旨>

本研究は日本の社会において在日済州人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がどのように形成され、どのような特性をもっているかを考察するものである。本研究の結果を要約すると、次のようである。第一に、在日済州人は日本の社会において困難な暮らしを克服するために、村の単位別に様々な形態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を形成したのである。第二に、在日済州人は日本の社会において門中会、宗親会、親族会などを中心に血縁ネットワークを形成したのである。第三に、在日済州人は日本の社会において親睦会、郷友会、親族会などを中心に地縁ネットワークを形成したのである。第四に、在日済州人は日本の社会において近代的な人間関係の契機を作るため、初・中・高校という同窓会を中心に学縁ネットワークを形成したのである。第五に、在日済州人は日本の社会において済州道出身者の移住歴史と定着過程、地域正体性など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を通じて在日済州人の社会の過去と現在、そして未来を予測できる。従って、この研究は 在日済州人の社会を明確に捉える必要があるため、日本の社会で居住している在日済州人を中心に在日済州人の暮らしを社会的ネットワークの観点から考察した。結局、在日済州人は、韓人社会の中で占めている比重が高く、門中、村、学校など様々な形の親睦団体といった非公式組織を形成し、地縁、学縁、血縁のような社会的ネットワークが強く持続される特殊性をもっているといえる。

主題語：在日済州人(Jejuian residents in Japan), 社会的ネットワーク(social network), 血縁ネットワーク(blood relation network), 地縁ネットワーク(regional relation network), 学縁ネットワーク(school connection network)

## 1. 머리말

2007년도 入管協會가 발표한 在留外國人統計에 따르면 일본 속의 전체 외국인 인구는 2,084,919명으로 파악되었다. 이 가운데 아시아출신 인구는 한국·조선 598,219명(28.7%), 중국 560,741명(26.9%), 필리핀 193,488명(9.3%) 등을 포함한 1,540,764명에 달하였다. 현재 재일(在日)한인 인구는 다른 외국인에 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재일제주인은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42-B00113).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연구소 연구교수

97,651명으로 전체의 약 16.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칸토(關東)지역에 26,983명(27.6%), 칸사이(關西)지역에 64,000명(65.5%)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2개 지역의 재일제주인 수가 전체 97,651명 가운데 90,983명으로 93.1%를 차지하고 있다.<sup>1)</sup>

재일제주인은 일제강점기에 징용, 징병 등 강제적으로 이주(involuntary emigration)되거나 1945년 광복 이후 4·3사건과 전쟁을 피해, 그리고 출가해녀(出稼海女) 등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도쿄(東京) 미카와시마(三河島)나 오사카(大阪) 이쿠노구(生野區) 등의 대도시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재일제주인의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칸사이지역에 많이 거주한 것은 오사카와 코베(神戸)를 중심으로 한 공업지대에서 직공 모집이 많아 취업이 비교적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22년 10월 제주~오사카 간의 기미가야마루(君代丸) 등 직항로가 취항하면서 일본과의 왕래가 쉬운 지역이라는 점도 작용하였다.<sup>2)</sup>

하지만 이들은 자발적 이주(spontaneous emigration)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재일제주인은 사회·문화적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항상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여 왔다. 결국 한민족 디아스포라(Diaspora)<sup>3)</sup> 국가 중 재일한인(재일제주인 등)의 일본 이주가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정착과정이었다고 한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에서 불합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삶의 변화를 영위하고자 문중, 마을, 학교 등 여러 형태의 친목단체인 비공식조직(informal organization)을 형성하면서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지속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이유는 일본사회 속에서 정신적 지주와 애향심, 그리고 상호간 인적교류를 통해 제주인의 삶에 따른 아이덴티티(identity)를 찾아가 하였고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에서 각종

1) 入管協會(2007), 『在留外國人統計』.

2) 신행철(2004), 『제주사회와 제주인』, 제주대학교출판부, pp.464~465.

3) 디아스포라(Diaspora)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 아니다. 우리말로는 민족이산(民族離散)으로 번역되는데, 단지 같은 민족구성원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분산한 동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어원적으로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 전치사 dia(영어로 over, 우리말로 ~를 넘어)와 동사 spero(영어로 to sow, 우리말로 뿌리다)에서 유래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디아스포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윤인진(2005), 『코리아 디아스포라-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pp.4~5.

4) 金泰永(2005),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 특성과 기업가정신”, 『日本文化學報』 제27집, 韓國日本文化學會, pp.1~26.

친목회 관련 자료, 각 마을 洞(里)誌, 耽羅研究會(濟州島誌), 각종 曙·市·郡誌을 통하여 재일 제주인의 삶 속에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또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러한 과제를 설정한 이유는 과거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제주인의 삶 속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면서 여러 다양한 측면을 가진 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일제주인은 일본 이주에서부터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직업을 구하고,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일까지 삶의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재일제주인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재일제주인의 의미

재일제주인의 의미란 ‘재일동포(在日同胞)’의 개념을 원용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일시 체류, 영주권자, 유학, 2·3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제주출신 재일동포, 제주출신 재일교포, 재일 제주출신자, 제주출신 재외교민(교민사회) 등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재일(在日)’을 규정하는 것이 국가시스템에 따른 한국이나 조선(북한)이라는 국적 표시인지, 또는 우리와 같은 혈통인지, 또는 역사나 문화에 얽힌 의식인지, 나아가서 재일한인의 권리획득을 위해 싸우는 존재인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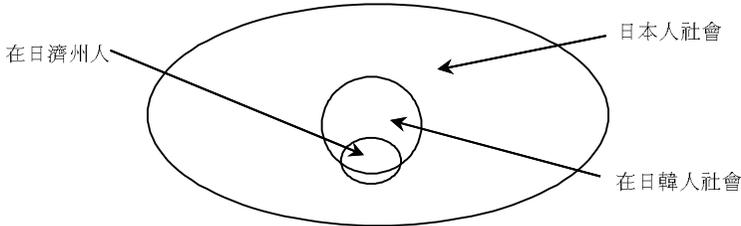
현재 재일제주인의 놓여져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 속에서 재일한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다른 본적지 출신자에 비해 강한 지역성을 표출하는 이중구조(二重構造) 성격을 지니고 있다(<그림 1>참조). 1925년 이쿠노구(生野區)에는 다른 지역출신의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재일제주인은 이들로부터 ‘섬놈’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폭력과 멸시당하는 이중적 차별을 일본 사회에서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출신들은 역경을 딛고

5) 尹健次(2002), “21세기를 향한 ‘在日’의 아이덴티티”,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pp.285~315.

일어서는 저력으로 지금의 재일제주인 사회를 형성하여 왔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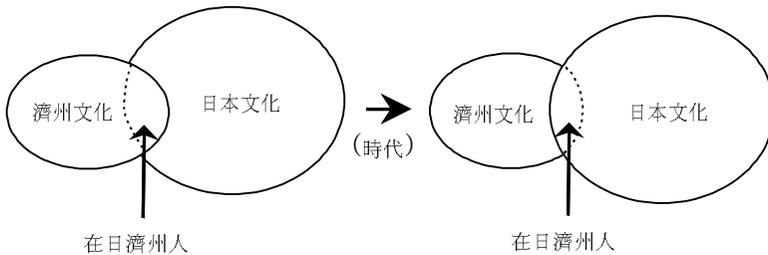
<그림 1> 日本 속의 濟州人(二重構造)



자료 : 양성중(2005), 『在日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외.

둘째, 재일제주인은 일본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제주문화를 지키려는 의식이 강한 이면성(裏面性)을 갖고 있다(<그림 2>참조). 하지만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제주문화를 의식하고 간직하기보다는 일본문화에 흡수되어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원인은 해방 이후 6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민족의식과 가치관, 생활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민족교육을 받는 재일동포 자녀가 격감하는 중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한인이 증가하고 제주도와의 인적교류가 감소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일한인을 포함한 재일제주인은 바야흐로 국적이냐 혈연, 의식 상태나 문화, 그리고 세대교체 등의 측면에서 매우 복잡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濟州島와 在日濟州人(二面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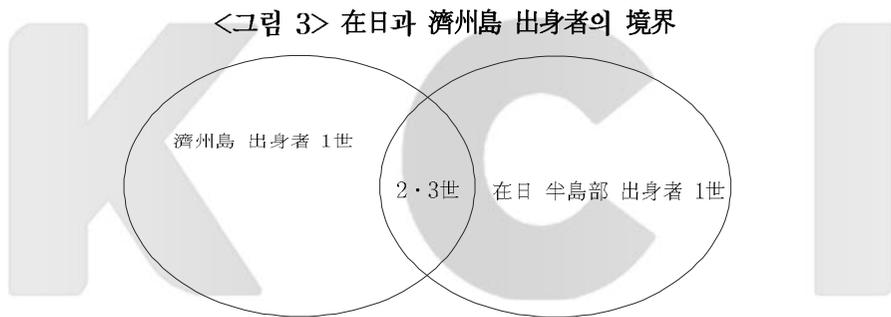
자료 : <그림 1>과 동일.

셋째, 재일제주인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들로서 도(道) 단위보다는 마을(洞, 里) 단위의 공동체적(共同體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제주인의 마을

6) 신행철(1997),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濟州島研究』 제14집, 濟州學會, p.70.

단위별로 구성된 친목조직이 활성화된 것도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생활의 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본래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상호부조와 친목도모의 기제(基劑)로써 활용되어 재일제주인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성을 발휘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넷째,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 속에서 동일한 입장의 재일동포 중에서 결혼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가치체계의 양면성(兩面性)을 지니고 있다(<그림 3>참조). 이것은 제주도 출신자가 일본사회 속에서 생활하여 온 타 지역 출신자와의 교류가 있으면서 일본인보다는 가치체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국가의 사람으로서 수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제주도 출신자 속에서도 2·3세는 소위 재일한인으로서 타 지역 출신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본국의 유교적 사고를 흡수하여 개념화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제주도의 생활양식이 전달되어 가부장제적(家父長制的) 사고가 강하지 않아 결혼하면 부모와 따로 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sup>7)</sup>



자료 : 高鮮徽(1996),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 新幹社

따라서 재일제주인 1세는 온갖 차별과 멸시 속에서 피와 땀으로 재일제주인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대를 살았다고 한다면, 2세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재일제주인 사회를 보다 공고하게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재일제주인 3세도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으로서 일본사회에서 그들이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일제주인 사회는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高鮮徽(1996),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 : 關東地方を中心に』, 新幹社, p.138.

## 2.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네트워크 연구는 소집단, 기관, 종족, 마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연결고리의 중요성을 사회과학자와 인류학자, 사회심리학자들이 설명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sup>8)</sup> Wellman(1982)은 네트워크(network)란 자원이 동원되는 교환, 의존, 제휴와 같은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이면서 한 개인이나 타 사회와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특성이나 능력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9)</sup> 즉 네트워크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다양한 주체와의 접촉, 교류, 제휴를 통하여 새로운 자원(기술, 지식, 정보 등)의 발굴과 지속적인 자기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sup>10)</sup>

또한 네트워크 이론은 인간의 경제행위에 있어서 합리적인 경제적 동기보다는 경제행위에 배태(胚胎)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문화, 네트워크 등)에 의해 좌우된다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한다.<sup>11)</sup> 아무튼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네트워크는 상호에게 의무감이나 기대, 호혜성(互惠性)과 신뢰감을 부과하거나 유연성(柔軟性), 교환(give and take) 등을 필요로 하며 경제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네트워크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관계로부터 성립하고, 그 관계를 통하여 네트워크에 관련된 행위자가 다양한 자원에 접근하고, 상호간에 자원을 전달하며 교환하는 사회적 관계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공식적인 명령체계나 변동하는 가치체계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호혜성과 조화가 유지되는 상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sup>12)</sup>

이러한 네트워크(network) 개념과 관련하여 Seibert, Kramier & Liden(2001)은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개인간의 관계로 보고 자아(自我)에 의해 정의된 집단의 사람들 혹은 사회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사회 연계망의 패턴(patterns of social linkage)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 관계들로 구성된다.<sup>13)</sup> 또한 Ibarra(1995)는 백인과 소수민족 관리자

8) Stokowski, P. A.(1994), *Leisure in Society : A Network Structural Perspective*, Mansell Publishing Ltd.

9) Wellman, B.(1982), "Network Analysis : From Metaphor and Intended Method to Theory and Substance", *Sociological Theory*, Vol.1, pp.62~63.

10) 권병욱(2005), "일본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변화와 경제적 성과", 『日本文化學報』 제26집, 韓國日本文化學會, p.3.

11) Granovetter, M.(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Sociology*, Vol.91(3), pp.481~510.

12) Walter, W. Powell(1990), "Neither Market Nor Hierarchy : Network of Organization",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12, pp.295~336.

13) Seibert, S. E., Kramier, M. L., Liden, R. C.(2001), "A social capital theory of careers 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4(2), pp.219~237.

들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연구에서 네트워크를 관리자가 직무와 관련된 경력·사회적 지원을 얻기 위해 의존하는 직무관련 접촉(contact)으로 정의하였다.<sup>14)</sup> Walker(1985)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개인이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원, 물질적 보조,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회 등을 제공받는 일련의 개인적 관계의 집합체라고 정의하였다.<sup>15)</sup>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행위자들 사이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축되면서, 목적 지향적 행위들이거나 또는 상호간의 호혜적 기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sup>16)</sup>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 효과는 정보획득과 지원효과로 집약되며, 그것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정보의 수준도 어느 정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sup>17)</sup>

### 3. 기존연구의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재일제주인의 이주와 정착과정, 그리고 이들 삶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재일한인을 포함한 재외한인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일수(1981)는 뉴욕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기업이 현지사회의 한국 이민자를 경제적으로 상승 이동시켰으며, 에스닉(ethnic) 기업이 현지사회의 주변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밝혔다. 특히 미국에서 한인 기업가의 성공에 대해 현지사회의 한인 네트워크가 수행한 역할에 주목하여 에스닉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자원은 특정의 민족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민족 네트워크<sup>18)</sup>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교육수준, 기업을 지향하는 직업

14) Ibarra, H.(1995), "Race, opportunity, and diversity in social circles in managerial : A conceptual framework",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38, pp.673~703.

15) Walker, G.(1985), "Network position and cognition in a computer software firm",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30, pp.103~130.

16) Coleman, J. S.(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pp.300~321.

17) 손동원(2002), 『사회적 네트워크』, 경문사, p.10.

18) 민족 네트워크란 민족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 정의된다. 한인 뉴커머(newcomer)가 만들어내는 사람과 사람의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민족 네트워크라 한다면 취업기회, 정보의 획득, 법률 생활문제, 복지나 생활에 관련된 상호부조 등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민족 네트워크는 일상적인 개인 네트워크에서부터 경제 거래까지 다양하며 사회적 관계망이 중층적 구조로 점차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 네트워크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에스닉(ethnic) 기업의 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동원의 수단으로서 개개인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이다. 민족 네트워크는 현지사회의 창업에 있어서 개개인을 활용하는 에스닉 자원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민족 네트워크는 미국의 에스닉 기업 연구에서 특정의 에스닉 집단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동원되는 사회적 자원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임영언(2006), 『재일

가치관, 또는 친족이나 지인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 자금지원, 경영의 노하우 등 다양한 자원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sup>19)</sup> 김일수(1987)는 한인 이민자가 직업정보, 기업정보, 접촉, 거래, 대출 등을 입수하기 위해 순번제신용조합(RCA : Rotating Credit Association)이라는 계(契)에 의해 사업자본 및 사업정보, 또는 상호원조 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동창회, 교회, 기업가 협회 등의 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사업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sup>20)</sup> 권현주(1997)는 교회가 한인 커뮤니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교회가 한인 기업가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한인의 에스닉 교회가 이민자들의 정착과정에 필요한 실제의 비공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한다.<sup>21)</sup> 유진경(1998)은 애틀랜타의 한인 기업가를 연구하여 창업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가족 네트워크와 사회적 네트워크로 분류했다. 가족 네트워크는 친족으로부터 구성된 네트워크이며, 사회적 네트워크는 교회, 기업가 협회, 커뮤니티 조직 등을 통해 형성되는 네트워크이다. 더욱이 창업자본의 확보에는 가족 네트워크 또는 기업정보의 입수경로로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유효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최근에는 가족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고 창업하기 위해 이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그것은 한인 이민사회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그것을 통해 기업정보의 입수나 기술습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sup>22)</sup>

이 외에도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의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쿠다(奥田道大, 2003)는 아시아인 연구에서 한국인 뉴커머를 점착적 적응(adhesive adapt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핵심부분에서 자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주변부분에서는 점착적(漸次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문화(異文化) 환경에의 적응자세를 자각적·자의적으로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일본사회에서 보면 한인이 적극적인 적응, 동화 자세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족 자긍심, 전통문화 등 한인 자신의 특성이 중심에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sup>23)</sup> 高鮮徽(1998)는 일본의 4대 집합장소의 하나인 요코하마(橫兵)시 A지역의 간이숙박소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관계를 조사했다. A지역에는 1988년경부터

코리아인 기업가』, 한국학술정보, pp.23~24.

19) Kim, Ill-Soo(1981), *New Urban Immigrants : The Korean Community in New York*,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 Kim, Ill-Soo(1987), *The Koreans : Small Business in an Urban Frontier*,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21) Kwon, Hyon-Chu(1997), *Entrepreneurship and Religion : Korean Immigrants in Houston, Texas*. New York and London : Garland Publishing, Inc.

22) Yoo, Jin-Kyung(1998), *Korean Immigrant Entrepreneurs : network and ethnic resources*, New York & London : Garland Publishing, Inc.

23) 奥田道大(1993), 『都市と地域の文脈を求めて—21世紀システムとしての都市社会学』, 有信堂高文社.

한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시작되면서 제주도 출신자 중에서도 K읍 출신자가 많았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재일한인에게 취직을 의뢰하는 관계가 소멸하는 대신에 노동수요에 관한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K읍에서 제주도로, 그리고 한인 모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sup>24)</sup> 이것은 이민과정에서 지금까지 한인들이 의지해 왔던 혈연이나 지연 네트워크 대신에 도일 후의 친구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지마(田嶋淳子, 1998)는 신주쿠(新宿) 오쿠보(大久保)지역의 한국인 뉴커머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에스닉 기업과 기업가의 번성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민족 네트워크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혔다. 에스닉 기업가 층의 형성은 종교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뉴커머의 접점을 다양하게 하고, 또한 유학생이 주채원으로 이행하거나 일본 외국계 기업에의 취직을 매개로 하여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sup>25)</sup> 이러한 뉴커머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는 이주자와 그 가족, 한국계 일본인의 존재 등 종래의 재일한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포함시키면서 일본사회와의 접점이 확대되어가는 경향을 생각할 수 있다. 임채완 외(2007)는 재일한인 기업가 및 기업의 특징을 기술하면서 재일한인 기업의 네트워크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재일한인들이 조직화하여 형성하고 있는 단체 및 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사례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재일제주인의 삶을 ‘네트워크’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가와·테라오카(小川伸彦·寺岡伸悟, 1995)는 재일한인 중에서 재일제주인의 ‘고향 마을’이라는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유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재일제주인의 인적 네트워크가 재일제주인 사회의 형성뿐만 아니라 고향 제주에의 기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sup>26)</sup> 이문웅(1998)은 재일제주인 사회의 형성과 특성을 타지역출신의 재일한인 사회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이들 사회의 형성과 유지에 작용하고 있는 제주도 특유의 혈연, 지연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sup>27)</sup> 伊地知紀子(2002)는 타향에서의 생활과 공동성(共同性)을 알아보기 위해 在日本杏源里親睦會 사례를 조사하였다. 재일제주인의 친목회는 재일한인의 다양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중에서 제주인의 특수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작은 마을 단위로 모이는 것은 그러한 상황규정성(狀況規定性)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하였다.<sup>28)</sup> 다케자와(滝沢健次, 2004)는 재일코리안(在日Korean)의 동향 네트워크, 친족

24) 高鮮徽(1998), 『20世紀の滞日濟州島人-その生活過程と意識』, 明石書店.

25) 田嶋淳子(1998), 『世界都市・東京のアジア系移住者』, 学文社.

26) 小川伸彦·寺岡伸悟(1995), 『在日社會から「故郷」濟州道への寄贈-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地縁結合-』, 『社会学論集』 第二号, 奈良女子大学, pp.77~97.

27) 이문웅(1998), “재일(在日) 제주인 사회에 있어서의 지연과 혈연”, 『한국 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집문당, pp.355~378.

28) 伊地知紀子(2002), 『生活世界の創造と実践-韓国・濟州島の生活誌から』, 御茶の水書房, pp.21

네트워크, 종교 네트워크를 둘러싼 한국 제주도에서의 공동조사를 중심으로 국내와 일본, 미국 등의 각 지역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주자와 고향 간에 결합되어 있는 밀접한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제주도 高內里 출신자를 중심으로 재일제주인의 이주와 사회적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었다.<sup>29)</sup> 고광명·진관훈(2006)은 인적 네트워크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재일제주인의 상공업활동과 제주도에의 기증현상을 분석했다. 이를 통하여 제주사회와 재일제주인 사회가 불신과 갈등을 넘어 서로의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30)</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에서 재일제주인의 삶의 변화에 따른 이주와 정착 과정, 지역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 3.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 1. 사회적 네트워크 현황

한국 사회는 연줄 사회라는 말에 조직구성원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혈연·지연·학연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내에서도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연줄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이에 대한 정량적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이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sup>31)</sup>

그런 의미에서 재일제주인은 도(시·군·읍 등) 단위의 조직을 구성하는 다른 지역 출신의 재일한인과는 달리 마을(동·리) 단위별로 조직을 형성하여 유대와 친목 관계를 맺어 오고 있다. 이것은 제주사람들이 마을을 지역 정체성의 기본단위로 인식하고 있고, 사회적 관계의 출발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고향 마을

3~231.

29) 滝沢健次(2004), 「在日高内里出身者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そのコミュニティ形成史を中心に」, 『在日コリアン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と文化動態に関する比較社会学的研究』, 文部省科学研究費 国際学術研究報告書, pp.18~43.

30) 고광명·진관훈(2006),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사회과학연구』 제14(1)집, pp.148~181.

31) 전수진·박경규(2007), “사회 네트워크가 개인의 직무성과 및 경력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인사관리연구』 제31(1)집, 한국인사관리학회, p.148.

의 연장이며, 제주사회의 마을 경계(境界)가 이주지인 일본으로까지 확장됐다고 볼 수 있다.<sup>32)</sup> 더욱이 이주 초기에 재일제주인은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삶을 영위하였으나 점차 오사카(大阪) 이카이노(猪飼野)지역에 모여 살면서 친목회, 상조회 등의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것은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타 지역 출신의 재일한인들이 도 단위 혹은 시·군 단위의 조직을 만들고 있는 반면, 제주도 출신자들은 마을 단위의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sup>33)</sup>

<표 1>에서 보면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혈연 네트워크 2개, 지연 네트워크 175개, 학연 네트워크 34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 단위별로는 道 단위 23개, 洞 단위 61개, 里 단위 139개 등 총 211개에 이르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칸토지역 73개, 칸사이지역 112개, 기타 26개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주 초기에 제주도 출신이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칸사이지역에 많은 조직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들 사회적 네트워크는 혈연과 학연 네트워크 보다는 친목회, 향우회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연 네트워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일본으로 이주한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만이 지니고 있는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은 사회적 네트워크인 혈연, 지연, 학연 네트워크에 따라 자금을 융통하기도 하고, 숙박이나 취업 등을 알선하기도 했다.

따라서 재일제주인은 일본이라는 이국에서의 어려운 생활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친목도모 및 상호부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마을 단위를 기초로 다양한 친족회, 향우회, 동문회 등을 조직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표 1>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현황

(단위 : 개)

구분		사회적 네트워크				
단위별	지역별	혈연 네트워크	지연 네트워크			학연 네트워크
			關東	關西	기타	
道 단위	濟州道		4	13	6	
洞 단위	濟州市		11	12	12	7
	西歸浦市		3	11		5
里 단위	北齊州郡	2	30	39	6	19
	南濟州郡		10	18		3

자료 : 각종 자료에서 필자 작성.

32) 김창민(2003), “재일교포 사회와 제주 마을간의 관계 변화 : 1930-2000”, 『비교문화연구』 제 9(2)집,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6쪽.

33) 이문웅(1998), 앞의 책, 366쪽.

## 2. 사회적 네트워크 조직

在留朝鮮人關係主要團體現勢一覽表(1993)에 따르면 당시 경찰당국이 조사한 재일조선인 단체는 전국에서 984개(인원 13만 3,923명)로 그 중 오사카후(大阪府)에 등록된 단체는 231개(인원 5만 5,109명)로 파악되었다. 이들 단체의 목적은 친목, 상호부조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예를 들면, 오사카후인 경우 재일조선인 단체의 명칭에 친목이란 단어를 표현한 단체는 22개이며, 이 외에 상호(相助), 친조(親助), 구제(救濟), 동정(同情), 구조(救助), 공제(共濟), 부조(扶助), 공조(共助) 등의 표현을 포함하면 23개 단체로 확인되어, 이들 단체의 대부분이 친목, 부조 성격을 띤 조직이었다.<sup>34)</sup>

이처럼 당시 재일조선인 단체가 친목도모,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사회정책의 부재, 유동적 거주형태, 의사소통에서 일본인들 간의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 생활상의 곤란을 조선인들 간의 도움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고향이면서 친족이라는 재일제주인 간의 결합으로 집단 거주지나 직업을 거의 동향 출신자가 차지하는 연쇄형 이민(chain emigration)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35)</sup>

<표 2>에서 보면 도쿄지역의 경우는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가장 역사가 긴 高内靑年會東京支部(인원 80명)가 존재하고 있다. 반면 오사카인 경우는 30개 단체 중에 10개(인원 1,297명)가 재일제주인의 친목단체로 파악되어 재일제주인의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재일조선인 단체가 대부분 지연 관계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지연이나 혈연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요소를 갖는 단체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4) 外村 大(2004), 『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形成・構造・変容』, 緑蔭書房, pp.97~99.

35) 外村 大(2004), 위의 책, p.98.

<표 2> 일본에 있어서 지연을 기초로 한 재일조선인 단체(1934년)

(단위 : 명)

지역	단체 명칭	출신지 지역	조직 인원
東京	在東京山清郡人會	慶尙南道 山清郡	28
	在東京陝川郡人會	慶尙南道 陝川郡	140
	在東京南海親睦會	慶尙南道 南海郡	80
	在東京義城郡人會	慶尙北道 義城郡	191
	康津郡人會	全羅南道 康津郡	46
	高内青年會東京支部	全羅南道 濟州島 新右面 高内里	80
	在東京順天郡人契	全羅南道 順天郡	75
	麗水郡人契	全羅南道 麗水郡	31
	在東京井邑鄉人會	全羅北道 井邑郡	60
	西湖親睦會	咸鏡南道 西湖郡	36
	在東京文川親睦會	咸鏡南道 文川郡	34
	在東京定平定友會	咸鏡南道 定平郡	74
	在東京新寧鄉友會	不明	85
大阪	釜山同心大富貯蓄會	慶尙南道 釜山府	31
	在阪居昌親睦會	慶尙南道 居昌郡	170
	固城同志會	慶尙南道 固城郡	80
	大阪固城郡親睦會	慶尙南道 固城郡	50
	在大阪南海親睦會	慶尙南道 南海郡	50
	大邱一光青年會	慶尙北道 大邱府	100
	湖南九歲會	全羅道	15
	湖南親睦會	全羅道	70
	湖南修養團	全羅道	41
	古今親友會	全羅南道 莞島郡 古今面	23
	西好里青年會大阪支會	全羅南道 濟州島 右面 西好里	127
	龍水里協和青年團	全羅南道 濟州島 舊右面 龍水里	100
	金寧里青年會	全羅南道 濟州島 舊左面 金寧里	255
	細花青年會	全羅南道 濟州島 舊左面 細花里	100
	在日本吾羅里教化革新會	全羅南道 濟州島 濟州面 吾羅里	85
	三陽里親睦會	全羅南道 濟州島 濟州面 三陽里	60
	道頭親成會	全羅南道 濟州島 濟州面 道頭里	150
	新右日親會	全羅南道 濟州島 新右面	100
	新興里青年會大阪支部	全羅南道 濟州島 西中面 新興里	170
	濟州島西中面泰興里青年團	全羅南道 濟州島 西中面 泰興里	150
	在日本荷衣共勵會	全羅南道 新安郡 荷衣面	50
	長興親友會	全羅南道 長興郡	50
	在大阪珍島青年會	全羅南道 珍島郡	170
	宝城親睦會本部	全羅南道 宝城郡	57
	沃川同情會	全羅南道 沃川郡	70
	錦城親興會	全羅南道 羅州郡	10
	麗水親和會	全羅南道 麗水郡	250
忠清道親睦會	忠清道	50	
咸鏡人親睦會	咸鏡道	40	
堂里有信會	堂里	40	

자료 : 外村 大(2004), 『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形成・構造・変容』, 緑蔭書房.

### 3.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

제주도에서는 일본의 직공(職工) 모집에 응하면서 1920년대부터 본격적인 도일(渡日)이 시작되었다고 한다.<sup>36)</sup> 당시 재일제주인의 직업 분포는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시기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 예속되어 10년이 지났지만 재일제주인의 직종은 저임금으로 장시간 육체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부문, 더욱이 일본인 노동자들이 싫어하는 여러 산업부문에 집중하고 있었다. 재일제주인의 절대 다수가 방적공장, 고무공장, 제유공장 등의 공원(工員) 외에, 토목하청, 하숙, 재봉틀공장, 가방제조(製鞆) 등 일본산업의 최하위층 노동력으로 동원되었다. 그 후 작업 내용이 점차적으로 가방제조업 관련 분야로 집중하게 되면서 직종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제주도 출신자는 ‘가방제조의 리’, ‘신발제조의 리’ 라고 표현할 정도로 출신지역마다 특정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외에 재일제주인은 상업, 고물상, 운수업 등의 직종에도 어느 정도 종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sup>37)</sup> 결국 이들은 이주 초기부터 자본이나 기술을 가지고 이주하였다기보다는 단순 노동력을 가지고 일본의 저임금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현재까지 이런 전통이 남아있어서 양곡판매점, 잡화상, 공장노동을 통해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고무, 유리 관련 가내수공업과 봉제업에 종사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표 3>은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 在日高内里親睦會 회원의 직업별 구성을 살펴본 것이다. 그 이유는 전전(戰前)부터 고향 친목회가 처음으로 형성되어 전후(戰後)에도 고향에 대해 많은 기부를 하는 등 고내리(高内里)라는 지연을 주축으로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가방제조업이라는 특정의 직업에 많은 사람이 종사하여 그로 인해 일본사회 속에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 조직에서 보면 1986년에는 고내리 출신자가 가방제조업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반면, 1996년에 들면서 가방제조업 종사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86년 가방제조업에 종사한 고내리 재일제주인은 전체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였던 반면 1996년에는 오히려 16%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임원, 자영업, 회사원으로 종사하는 재일제주인 중에서 가방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거나 재단업, 봉제업 종사자 등도

36) 杉原 達(1999), 『越境する民—近代大阪の朝鮮人史研究』, 新幹社,

37) 李仁子(2004), 「移住者の故郷への寄付と故郷つきあいの変遷」, 『在日コリアン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と文化動態に関する比較社会学的研究』, 文部省科学研究費 国際学術研究報告書, pp.1~17.

가방제조 관련 산업으로 본다면 실제로 이것보다 약간 많다고 여겨진다.<sup>38)</sup>

따라서 1980년 이전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제주인은 거의 1세들에 의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음식업과 가방제조업, 신발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종사하였다. 특히 이들은 일본에서의 사회구조적 차별로 인해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주 초기에는 주로 가방제조, 신발제조, 자갈이나 고철수집 등 최하위 일일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상호간에 단결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내리친목회는 재일한인 사회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한 마을 단위의 친목단체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더욱이 자수성가한 기업가가 다수 배출된 마을로서 재일한인 사회의 연구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조직이라 할 수 있다.

<표 3> 제주도 在日高内里親睦會 회원의 직업별 내역(1986년, 1996년)

(단위 : 명, %)

	1986년도		1996년도	
	명	%	명	%
가방제조	111	28.5	72	16.2
회사원	127	32.6	191	43.0
회사임원	23	5.9	58	13.0
서비스업	50	12.9	37	8.3
자영업	48	12.3	22	5.0
의사	5	1.3	11	2.5
유기업	4	1.0	3	0.7
학생	15	3.9	12	2.7
기타	5	1.3	38	8.6
총수	388	100	444	100

자료 : 在日高内里親睦會(1986, 1996), 『在日高内里親睦會會報』.

#### 4.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집단을 형성하는 원리는 혈연·지연·학연 등을 통해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혈연 조직은 종친회, 문중회, 화수회라는 남성부계 출신을 중시하는 유교이념에 기초하여 결성되었다. 지연 조직은 도민회, 친목회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 동일지역(도·동·리 등) 출신자에 의한 수평적 관계에 기초하여 상호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학연 조직은 동창회, 동문회라는 초·중·고교 동창회가 서로 만나는 형태로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38) 滝沢健次(2004), 앞의 國際學術研究報告書, pp.36~42.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이 외에도 동일업종의 직업(商人會 등)이나 신앙(종교 네트워크 등)에 기초하여 관련 조직이 결성되는 경우도 다소 있다.

따라서 재일제주인은 지금까지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재일제주인의 다양성(多樣性)을 표현하고, 제주도 출신자의 특수성(特殊性)을 유지하면서 일본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하여 왔다.

## 1. 血緣(親族) 네트워크

재일제주인 사회는 다양한 차원의 혈연 및 지연, 학연 조직 등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동향 조직들은 친족회, 종친회 등을 포함한 같은 마을(동·리 등) 출신자로 구성되어 모두 강력한 ‘우리’ 의식 또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네트워크는 이들 사회 속에서 일반적인 성격으로서의 안(內)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sup>39)</sup>

<표 4>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중에서 ‘在日本白氏親睦會’와 ‘在日光山金氏親族會’를 중심으로 재일제주인의 혈연 네트워크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在日本白氏親睦會’는 1950년 도쿄에 살고 있는 제주도 출신의 白氏(약 16명)가 모여서 결성된 혈연 네트워크이다. 이 조직은 지연과 혈연이 중복되는 동향의 집안사람들로 형성된 모임이지만 고향 송금, 족보 편집 등 지역사회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으로 ‘在日光山金氏親族會’는 1954년 1월 오사카 이쿠노구에 살고 있는 제주도 출신의 광산김씨(약 20명)가 모여서 만든 혈연 네트워크이며, 2004년에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를 거행하였다. 이 조직은 오사카에 뿌리를 내린 제주도 출신의 한인사회에서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고 단합이 잘 되어 있는 친족집단 중의 하나이다. 이 조직에서 문중 단위의 선영이 아닌 동향 친족집단의 공원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재일제주인 사회의 생활조건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공동 부계조상을 갖고 있는 혈연 의식이 광산김씨로 하여금 하나의 친족집단으로 뭉치게 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그들이 본토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제주도 출신이라는 동향의식이 ‘光金會’ 통합성에 바탕을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점이 재일한인 사회에서도 제주도 출신의 제주인들 간에 지연과 혈연 의식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sup>40)</sup>

39)李文雄(1988), “재일 제주인의 의례생활과 사회조직”, 『濟州島研究』 제5집, 제주학회, p.57.

40)이문웅(2005), “재일(在日)제주인 사회에서의 생활문화에 나타난 적응전략: 광산 김씨 친족회를 중심으로”, 『在日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외 발표 자료집, pp.74~79.

따라서 혈연 네트워크는 일본사회 속에서 혈연관계에 기초하여 뭉쳤으며, 또한 단지 공동 부계조상의 자손들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같은 제주도 출신자로서 사회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 결국 이 네트워크는 단지 하나의 부계친족 조직이 아닌 혈연과 지연이 중복되는 교집합 영역에서 출범한 동향의 집안사람들 모임이란 특성을 지니고 있다.<sup>41)</sup>

<표 4> 재일제주인의 혈연(친족) 네트워크

구분	설립	출신	관계	설립 목적
在日本白氏親睦會	1950	白氏	혈연	친목도모, 상호부조, 조상숭배 등
在日光山金氏親族會	1954	光山金氏	혈연	친목도모, 상호부조, 조상숭배 등

주 : 각종 자료에서 필자 작성.

## 2. 地緣(同鄉) 네트워크

재일한인의 타 지역 출신자에 비교하여 제주도 출신자의 특징적인 것은 지연원리에 의해 집단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재일한인의 타 지역 출신자 경우는 행정구역상에서 가장 상위인 도 단위에서 일반적으로 조직화되어 형성되지만 제주도 출신자 경우는 도 단위는 물론 가장 하위인 동·리 단위에서 조직화되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동·리 단위에서 조직결성이 가능할 정도로 인구학적 측면과 지연결합성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sup>42)</sup>

<표 5>에서 보면 지연 네트워크는 도 단위 23개, 마을(동) 단위 49개, 마을(리) 단위 103개 등 전체 175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마을(동) 단위보다는 마을(리) 단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별에 따른 지연 네트워크는 칸토 58개, 칸사이 93개, 기타 24(지역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개로 나타나 도쿄에 비해 칸사이가 2배 정도 많게 분포되어 있다. 출신지역별로 구분한 지연 네트워크는 도 단위 17개, 시 단위 37개, 군 단위 97개, 기타 24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에서 전체 175개의 절반에 가까운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군 단위별로 보면 남제주군(28개)보다 북제주군(69개)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북제주군 출신자가 경제적 요인을 비롯한 정치적 이유로 인해 일본 이주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재일제주인 사회에서는 1960년대에 들어 도 단위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칸토지역은 1960년대 이후 濟州開發協會를 비롯한 몇 개의 도 단위 친목회가 결성되었다.

41) 이문웅(2005), 위의 자료집, p.74.

42) 이문웅(1998), 앞의 책, pp.364~369.

반면 칸사이지역은 在日濟州經濟人協會(1960년) 설립을 계기로 삼아, 이후 在日濟州道民會(1963년), 在日濟州道親睦會(1966년), 在日濟州青年會(1967년)가 창립되었으며, 1994년에 들어 이들 4개 단체를 통합하여 關西濟州道民協會를 결성하였다. 이들 단체는 일본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제주도 출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전쟁 이후 지역 경제발전 전에 다양한 지원을 하여 왔다. 결국 이러한 도 단위의 친목회는 제주도에 지원을 위한 목적 하에서 의식적으로 결성된 조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속에서 제주출신 사람들이 만들어 낸 마을 단위 네트워크는 어떠한 것도 동일한 형성 과정을 거치거나 세대가 계승되면서 바람직한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sup>43)</sup>

따라서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 속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이주 초기에서부터 마을 단위의 지연 네트워크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즉 이러한 네트워크는 이주 초기의 정착생활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거나 경제활동 기회를 모색, 자본 융통, 정보 교환 등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지연 네트워크가 활성화 된 지역일수록 그 마을 출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재일제주인의 지연 네트워크

구분	지역별	
	關東(東京)	關西(大阪)
道 단위 네트워크	在日(本)濟州開發協會, 在日東京耽羅研究會, 在日東京親睦會, 在日本關東濟州道民協會	在日(本)濟州道親睦會, 在日(本)濟州經濟人協會, 在日(本)濟州道民會, 在日(本)濟州青年會 在日大阪濟州道團體統合推進委員會, 在日本濟州道새마을婦人會(大阪本部), 在日(本)濟州道婦人親睦會, 在日濟州大學圖書寄贈委員會, 在日僑胞鄉土訪問團(大阪), 在日大阪濟州島研究會, 在日濟州道親睦會, 在日關西道民協會青年會, 在日本關西濟州道民協會
전체	在日濟州道體育會, 在日(本)濟州開發協會(岩手支部), 京都鶴津新友會, 在日京都婦人親睦會 在日本仙台濟友會 仙台濟州로터리클럽	
마을(洞) 단위 네트워크	在日本禾北郷友會, 在日頭新親睦會, 吾羅在日親睦會 在日泉洞在日僑胞親睦會, 內都洞東京親睦會, 砂水洞出身在日僑胞, 在日寧坪親睦會, 在日東京梨湖洞親睦會, 在日東京都頭親睦會, 東京山地親睦會, 山地勇進會東京郷友會	大阪禾北1洞同友會, 在日大阪禾北1洞婦女會, 在日本奉蓋洞親睦會, 在日本玄沙部落親睦會 吾羅在日親睦會 海安洞親睦會, 在日道南親睦會, 在日外都洞親睦會, 內都洞大阪親睦會, 在日煙臺親睦會, 在日本吾道僑胞, 貴日里味水洞出身親睦會
전체	狹來洞東京親睦會, 在東京法還有志會, 東京法還里親睦會	在日月坪親睦會, 在日本孝敦公進會, 在大阪濟法建親會, 在大阪濟法親睦會, 在大阪濟法婦人親睦會, 在日大阪濟法建親會青年會, 在日本大阪河川親睦會, 在日下狹里下洞親睦會, 在日僑胞河源出身親睦會, 狹來洞關西親睦會, 在日本西烘洞郷親會
전체	日本和歌山北로터리클럽, 在日街路鋪裝推進委, 在日西歸邑親睦會, 在日城山親睦會(静岡), 在日本城山邑親睦會(兵庫), 在日本西歸浦市友會, 在日本成進會, 在日本西歸浦市大川洞月坪出身婦人會, 在日西歸邑親睦會, 中文出	

43) 伊地知紀子(2002), 앞의 책, p.215.

마을(里)단위 네트워크	身婦人會, 在日濟城會, 大韓商銀市施相友會	
	翰林邑(在日洙源里鄉友會, 在日本歸德親睦會, 在日頭新親睦會, 關東地區金陵里親睦會, 日本關東地區洙源翰水鄉友會) 涯月邑(在東京涯月親睦會, 關東涯月出身親睦會, 在東京新嚴有志會, 在日高內里親睦會, 在東京高內婦人會, 在東京都新昌親睦會, 在日郭支鄉友有志會) 舊左邑(在東京金寧親睦會, 在日本金寧東京親睦會, 在日本金寧丙辰同年會, 山內協友會, 在日本東京終達里親睦會) 朝天邑(在日朝天親睦會, 東京北村里親睦會, 在日關東北村里親睦會, 在日咸德里親睦會) 翰京面(東京翰京親睦會, 東京龍塘親睦會, 在東京漢源里親睦會, 在東京板浦親睦會, 在東京金陵親睦會, 在東京新昌親睦會, 在日高山親睦會, 在日龍水親睦會) 牛島面(在日東京牛島親睦會)	翰林邑(在日狹才里親睦會, 大阪歸德親睦會, 在日釜浦里親睦會, 在日釜浦出身青年會) 涯月邑(涯月邑大阪親睦會, 在日本水山里出身親睦會, 在日光令親睦會, 在日長田親睦會, 在大阪高內里親睦會, 在日本錦城里協議會, 在日重嚴里親睦會, 在日郭支里親睦會, 在日郭支里일매會, 在日東貴里親睦會, 在日大阪納邑里親睦會) 舊左邑(在日坪岱(里)親睦會, 大阪下道婦人會, 上道里相助會, 在日本大阪終達里親睦會, 在日本金寧親睦會, 在日本細花人(里)協議會, 在日本細花婦人會, 在日漢東親睦會, 在日本杏源里親睦會, 在日松堂里協力親睦會) 朝天邑(在日善屹親睦會, 在日大阪咸德親睦會, 在日僑胞10人親睦會, 在日新村親睦會, 在日北村親睦會, 在日臥屹親睦會, 在日咸德里婦人會, 在日新村出身有志會) 翰京面(在日翰京親睦會, 在日高山親睦會, 在日關西地區漢源親睦會, 在日板浦親睦會, 在日演坪親睦會)
	大靜邑(在日大韓大靜邑會親睦會, 在東京上學里僑胞, 武陵2里親睦會) 南元邑(在日南元親睦會, 在日本東京居住泰興親睦會, 在東京爲美親睦會) 城山邑(在日城山親睦會) 安德面(在日本關東德修婦人會, 在日和順青年會) 表善面(在東京表善人協會)	大靜邑(在大阪加波親睦會, 在日日果里親睦會) 南元邑(南元邑在日濟州青年會, 在日新禮1里出身, 在日本新禮里親睦會, 在大阪爲美親睦會) 城山邑(在日大阪城山親睦會, 在日蘭山親睦會, 在日城山相友會, 在日新山親睦會, 在日水山婦人會, 在日水山里親睦會, 在日始興里民會) 安德面(在日大坪里(民)親睦會, 德修出身大阪相親會, 在日安德柑山親睦會, 倉川出身在日僑胞親睦會) 表善面(在日加馬里親睦會)
전체	在日濟州道師親會, 在日翰林邑婦女會(橫浜), 도라지親睦會(靑森), 在日大韓婦人會, 在日鷄林俱樂部, 在日大阪濟州親睦會	

주 : 각종 자료에서 필자 작성.

### 3. 學緣(同校) 네트워크

제주도 지역사회에서는 초·중·고교 동창이라는 출신 학교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지연과 함께 근대적 인간관계에서 상호간 접촉의 계기를 만드는 중간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중·고교리는 학연 네트워크는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어느 학교에 입학했는가, 또는 어느 학교의 출신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신뢰와 능력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표 6>에서 보면 학연 네트워크는 칸토지역 15개, 칸사이지역 19개로 형성되어 있다. 이들 학연 네트워크는 주로 출신 학교에서 지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초·중교를 중심으로 만들어 졌지만 고교 동창은 초·중학교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재일제주인은 거의 초등학교 동창관계를 통해 연결되었으며, 특히 같은 학교 출신의 동기 또는 선후배는 수월하게 그리고 매우 견고하게 유대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유대관계는 그대로 재일제주인의 이주와 삶의 변화, 그리고 정보교환 등을 증대시키는 데 크게 활용될 수 있었다.<sup>44)</sup>

따라서 재일제주인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네트워크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표현한 혈연, 친족, 지연 등<sup>45)</sup>은 비교적 안정된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관계는 지역별에 따라 정도의 차는 있지만 방치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사라질 집단이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관계를 소생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의식을 필요로 하며, 그것이 현재 행해지고 있는 동창회를 통한 학연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재일제주인의 학연 네트워크는 상호 간의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蓋然性)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표 6> 재일제주인의 학연 네트워크

구분	지역별	
	關東(東京)	關西(大阪)
學 緣	在日高山中増築委員會, 才陵地區樂器寄贈委員會, 在日本禾北校樂器寄贈會, 在東京新巖中後援會, 日本孝敦中後援會, 在日表善商高後援會, 在日楮清教育後援會, 在日新村校第6會卒業生會, 日本居住洙源初等學校出身, 在東京成德校第1會同窓會, 在日本金寧中第9會同門會, 在日本東京濟州商高總同門會, 在日表善商高後援會, 在日五賢高同窓會	武陵初等學校設立後援會, 始興初等學校後援會, 在日水山國校後援會, 在日楮清中後援會, 在日本江汀國校教育後援會, 在日泰興人教育後援會, 在日濟州北校第34會同窓會, 在日大坪國校同窓會, 大阪支部在日爲美國校卒業生會, 朝天校第17會在大阪親睦會, 大阪市法選校出身親睦會, 在日本新村校第3會卒業生會, 在日本新村校第4會卒業生會, 在日本新村校第5會卒業生會, 在日本新村校第9會卒業生會, 在日本新村校總同窓會, 在大阪第一中同窓會, 在日本金寧中同窓會, 大阪五賢高總同窓會
네 트 워 크		

주 : 각종 자료에서 필자 작성.

## 5. 맺음말

###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삶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특성을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재일한인을 다루는 연구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 속에서 어려운 삶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을(동·리)

44) 高廣明(1998), “韓國 財閥企業의 人間關係 네트워크에 關한 研究-大宇그룹의 人材調達·活用을 중심으로”, 『社會發展研究』 第14輯, 濟州大學校 地域社會發展研究所, pp.284~285.

45) 服部民夫(1992), 『韓國 네트워크와 政治文化』, 東京大學出版會, p.154.

단위별로 여러 형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결국 재일제주인은 지금까지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에서의 삶(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왔다.

둘째,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 속에서 문중회, 종친회, 친족회 등을 중심으로 한 혈연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결국 혈연 네트워크는 가족 및 친족간의 상부상조를 통해 일본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survival strategy)이었다.

셋째,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 속에서 친목회, 향우회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연 네트워크를 형성·유지하여 왔다. 특히 재일제주인의 네트워크 활동은 복제주군이 다른 출신지역에 비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연 네트워크는 재일제주인들 간의 친목도모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삶의 전반에 깊게 작용하고 있었다.

넷째,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 속에서 근대적 인간관계의 계기를 만드는 초·중·고교라는 동창회를 중심으로 한 학연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결국 재일제주인은 상대방의 출신학교를 안다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신뢰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거의 동등하게 판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네트워크는 일본사회 속에서 제주도 출신의 이주역사와 정착과정, 지역정체성 등 삶의 변화에 따른 인적교류를 통해 재일제주인 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최근 재일한상(在日韓商)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국내·외 한인사회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민들은 일본사회 속에서 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재일제주인의 삶이 지니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둘째, 재일제주인은 혈연과 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으로 이주한 경우도 다소 있었지만, 대부분 동향 출신자를 통해 이주하거나 정착함으로써 지연 네트워크가 강하게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재일제주인은 일본에서의 사회구조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나름대로의 지역정체성(地域正體性)을 추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일본으로 이주한 한인 중에서 제주도 출신자가 비교적 높게 차지하였던 것은 정치적, 경제적 등으로 인해 이주한 요인도 있었지만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적 특수성이 비교적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현재 기초통계 자료가 부족한 시점에서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고찰하였다는 것은 일본사회 속에서 제주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기존의 경험적 자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재일 친목단체와 관련된 향토지, 각 마을 洞(里)誌, 耽羅研究會(濟州島誌), 도·시·군 등 각종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목록 등을 가지고 전개하였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시키고, 다른 지역 출신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비교를 통해 연구결과를 보완시키면서 일반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용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혈연, 지연, 학연 항목 외에 다른 항목(종교와 상인 네트워크 등)을 추가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지역출신자의 한인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1980년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재일제주인을 대상으로 고찰을 시도하였지만, 향후에는 본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를 정밀화하면서 1980년 이후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高廣明(1998), “韓國 財閥企業의 人間關係 네트워크에 관한 研究-大宇그룹의 人材調達·活用을 중심으로”, 『社會發展研究』 제14집, 濟州大學校 地域社會發展研究所, pp.284~285.
- 고광명·진관훈(2006),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社會科學研究』 제14(1)집, 西江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pp.148~181.
- 권병욱(2005), “일본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변화와 경제적 성과”, 『日本文化學報』 제26집, 韓國日本文化學會, p.3.
- 金泰永(2005),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 특성과 기업가정신”, 『日本文化學報』 제27집, 韓國日本文化學會, pp.1~26.
- 김창민(2003), “재일교포 사회와 제주 마을간의 관계 변화: 1930-2000”, 『비교문화연구』 제9(2)집,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p.196.
- 손동원(2002), 『사회적 네트워크』, 경문사.
- 신행철(1997),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濟州島研究』 제14집, 濟州學會, p.70.
- 신행철(2004), 『제주사회와 제주인』, 제주대학교출판부.
- 양성중(2005), “在日 濟州人 研究의 現況”, 『在日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외 발표 자료집, p.205.
- 유철인(2000), “제주 사람들의 생활세계에서의 일본”, 『한국문화인류학』, 제33(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pp.361~378.

- 尹健次(2002), “21세기를 향한 ‘在日’의 아이덴티티”,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인진(2004), 『코리아 디아스포라-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 李文雄(1988), “재일 제주인의 의례생활과 사회조직”, 『濟州島研究』 제5집, 제주학회, p.57.
- 이문웅(1998), “재일(在日) 제주인 사회에 있어서의 지연과 혈연”, 『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집문당.
- 이문웅(2005), “재일(在日)제주인 사회에서의 생활문화에 나타난 적응전략: 광산 김씨 친족회를 중심으로”, 『在日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외 발표 자료집, pp.74~79.
- 임영언(2006), 『재일코리아 기업가』, 한국학술정보.
- 전수진·박경규(2007), “사회 네트워크가 개인의 직무성과 및 경력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인사관리연구』 제31(1)집, 한국인사관리학회, p.148.
- 高鮮徽(1996),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 關東地方を中心に』, 新幹社.
- 高鮮徽(1998), 『20世紀の滞日濟州島人-その生活過程と意識』, 明石書店.
- 李仁子(2004), 「移住者の故郷への寄付と故郷づきあいの変遷」, 『在日コリアン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と文化動態に関する比較社会学的研究』, 文部省科学研究費 国際学術研究報告書.
- 林永彦(2004), 『韓國人企業家』, 長崎出版.
- 服部民夫(1992), 『韓國 ネットワークと政治文化』, 東京大学出版会.
- 杉原 達(1999), 『越境する民-近代大阪の朝鮮人史研究』, 新幹社.
- 小川伸彦·寺岡伸悟(1995), 「在日社會から「故郷」濟州道への寄贈-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地縁結合-」, 『社会学論集』 第二号, 奈良女子大学, pp.77~97.
- 外村 大(2004), 『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形成・構造・変容』, 緑蔭書房.
- 伊地知紀子(2002), 『生活世界の創造と実践-韓国・濟州島の生活誌から』, 御茶の水書房.
- 入管協會(2007), 『在留外國人統計』.
- 在日本高内里親睦會(1986, 1996), 『在日本高内里親睦會會員名簿』.
- 田嶋淳子(1998), 『世界都市・東京のアジア系移住者』, 学文社.
-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 奥田道大(1993), 『都市と地域の文脈を求めて-21世紀システムとしての都市社会学』, 有信堂高文社.
- 滝沢健次(2004), 「在日高内里出身者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そのコミュニティー形成史を中心に」, 『在日コリアン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と文化動態に関する比較社会学的研究』, 文部省科学研究費 国際学術研究報告書.
- Coleman, J. S.(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 Granovetter, M.(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Sociology*, Vol.91(3), pp.481~510.
- Ibarra, H.(1995), "Race, opportunity, and diversity in social circles in managerial: A conceptual framework",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38, pp.673~703.
- Kim, Ill-Soo(1981), *New Urban Immigrants: The Korean Community in New Y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m, Ill-Soo(1987), *The Koreans: Small Business in an Urban Fronti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won, Hyon-Chu(1997), *Entrepreneurship and Religion: Korean Immigrants in Houston, Texas*. New York and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 Seibert, S. E., Kraimer, M. L., Liden, R. C.(2001), "A social capital theory of careers 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4(2), pp.219~237.
- Stokowski, P. A.(1994), *Leisure in Society: A Network Structural Perspective*, Mansell Publishing Ltd.
- Walker, G.(1985), "Network position and cognition in a computer software firm",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30, pp.103~130.

Walter, W. Powell(1990), "Neither Market Nor Hierarchy : Network of Organization",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12, pp.295~336.

Wellman, B.(1982), "Network Analysis : From Metaphor and Intended Method to Theory and Substance", *Sociological Theory*, Vol.1, pp.62~63.

Yoo, Jin-Kyung(1998), *Korean Immigrant Entrepreneurs : network and ethnic resources*, New York & London : Garland Publishing, Inc.

<필자 인적사항>

\*고광명

근무처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연구소                      직위 : 연구교수

주소 : 690-7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사석로 5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연락처 : 064-754-4788(연구실)

HP: 010-9838-0512

---

논문투고일 : 2008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08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08년 10월 05일  
2차 수정일 : 2008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0월 20일

---